

---

저자 (Authors)	스름 PARPIYEV SYRYM
출처 (Source)	<a href="#">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a> , 2015.12, 3-14(1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a> Resea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426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4263</a>
APA Style	스름 (2015). 한국 거주 우즈베크인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돌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3-14
이용정보 (Accessed)	전남대학교 168.131.63.*** 2020/05/26 21:3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한국 거주 우즈베크인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돌봄

스 림(PARPIYEV SYRYM)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과협동과정 박사과정)

## — 목 차 —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초국적 돌봄 이론
3. 연구 분석틀

### III. 우즈베크인의 돌봄

1. 물질적 지원
2. 정서적 지원
3. 모국 방문

### IV. 결론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초국가적 이주’ (transnational migration)라는 키워드가 국제 이주 분야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등장한 것은 90년대 이후이다. 초국가적 이주라는 개념은 이주민이 거주국 사회와 본국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전지구화와 국제 이주가 더욱 심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국경을 초월해 지내는 ‘초국적 가족’ (transnational family)이 국제 이주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sup>1)</sup> 다양한 목적의 국제이주자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국경을 두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초국적 가족’ 과 가족원 간의 ‘초국적 돌봄(transnational care)’ 의 실천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초국가적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 공동의 복지와 가족적 일체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하며, 초국적 가족 관계 유지의 핵심은 ‘초국적 돌봄(transnational care)’ 의 교환이라고 한다.<sup>2)</sup> 초국적 가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돌봄 실천에 참여하는 가족원의 경제적 능력, 돌봄의 의무와 헌신에 관한 문화적 정의, 이주·정착·고용에 관한 이주국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초국적 가족의 돌봄 실천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sup>3)</sup>

1) Bryceson, D. and U. Vuorela, 2002, “Transnational Fami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 Bryceson and U. Vuorela eds., The Transnational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ew York:Berg.

2)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Aged Care: the mobility of care and the migrants of ag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Studies, Vol. 33, No. 2, 275-297.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의 수는 43,852명이다.<sup>4)</sup> 그 중에 결혼 이민자는 2,219명, 고려인은 17,632명이고, 우즈베크인 근로자의 수는 약 15,200명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상호조약을 맺던 16개 국가 중에 하나이며, 우즈베크인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한국입국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제의 악화, 실업률의 증가, 본국에서 임금이 낮은 직업보다 나은 구직 등의 요인들에 의해 우즈베크인들의 외국유출이 본격화되면서, 특히 한국으로 이주는 증가하고 있다.<sup>5)</sup>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거주 우즈베크인 이주노동자의 모국 가족원과의 초국적 가족관계 유지와 돌봄 실천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국제이주가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끼친 정서적 영향, 가족을 위한 돌봄 실천, 가족과 재결합의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소련이 붕괴 된 이후 독립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열악한 경제 환경과 경직된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약 2백만에서 8백만 명 사이의 우즈베크인이 일자리를 구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우즈베크인 노동자의 주요 이주 대상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유럽연합국가, 한국 등이다. 해외로 이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이주노동자의 65%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2,156,651명을 차지했다.<sup>6)</sup> 2015년 6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43,852명이고, 이들 중 15,200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 단기방문비자(C-3) 소지자이다. 이들은 2006년 3월에 체결된 한·우즈 고용허가제<sup>7)</sup>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주로 3D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 하고 있다. 이들의 모국으로 보낸 송금은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약 1,000만 ~ 1,500만 달러이며, 전체 송금의 1%를 차지했다.<sup>8)</sup>

이 연구는 한국을 체류하여 일 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이주 노동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을 알아보기 위해 이주노동자 2 명을 만나며,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인 2명은 대전광역시, 김해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며 이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1>과 같다.

3) Goulbourne, H., et al., 2010, Transnational Families: Ethnicities, Identities and Social Capital, London: Routledge.

4) 한국 추립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2014년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8&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6&strWrtNo=128&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5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검색일: 2015년12월9일)

5) Узбекистан-Южная Корея: Депортирован еще один мусульманин, искавший убежища в Сеуле, <http://russian.eurasianet.org/node/59261>(검색일: 2015년12월9일)

6) Статистика ФМС: количеств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иргизии, Таджики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в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http://migrant.ferghana.ru/newslaw.html>

7)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허가제, 이렇습니다.』, 2005

8) Erica Marat, 2009, "Labor Migration in Central Asia: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 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성

사례 순서	성명	나이	국적	혼인상태	한국 입국년도	거주 지역	직업
1	F씨	30	우즈베키스탄	미혼	2010	김해시	영어 교사, 농업직
2	M씨	45	우즈베크스탄	기혼	2007	대전광역시	건축직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초국적 가족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 중 ‘전 지구적 돌봄 연쇄(global care chain)’의 개념을 통해 전지구화와 돌봄 및 이주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들(Hochschild, 2000, 2005; Dreby, 2006; Parnas, 2001, 2005; Yeates, 2009, 2012)은 초국적 부모 중 특히 어머니가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의 분석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연구는 남반구의 개발도상 국가의 어머니가 북반구의 서구 선진국의 가사 돌봄 노동자로 떠나면서, 이들 여성자의 자녀는 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 엄마에 맡겨지는 자녀가 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학자들의 연구는 국제이주자로서의 부모, 그 중에서 어머니의 본국 자녀 간의 초국적 관계 지속에 충심을 하였다.

최근에 국제이주와 가족 및 간호 분야 연구들(Baldock, 2000; Wilding, 2006; Baldassar, 2007, 2008; Treas, 2008; Zechner 2008)은 국제이주한 성인자녀와 남아 있는 노부모의 관계, 특히 초국적 돌봄에 관해서 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수행해야함을 역설했다. 실제적으로 성인 자녀의 국제이주는 한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약 없이 자녀를 직접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자녀와 노부모의 분기 상황을 야기한다. 돌봄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국경 넘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성인 이주자와 가족 간의 초국적 돌봄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지지, 모국을 방문 등의 형식으로 초국적으로 수행되어 있다.

### 2. 초국적 돌봄 이론

초국적 가족의 돌봄에 대한 연구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국제이주로 발생하는 돌봄 유출(care drain)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초국적 엄마노릇(transnational mothering)을 분석한 ‘전 지구적 돌봄 거리(global care chain)<sup>9)</sup>’의 개념이 널리 인용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 개념이 적용된 초국적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북반부의 전일제로 직업을 지닌 여성이 돌봄으로써 돌봄의 고리가 전 지구적으로 형성됨으로 주장한다.<sup>10)</sup> 이 개념은 전 지구적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여성의 고리를 타고 돌봄이 일 방향으로 흐르는 이동을 전제하고 있는데, 고리의 한쪽 방향으로 돌봄이 흐르고 반대방향으로는 송금이 이루어지는 ‘돌봄의 상품화’를 강조한다.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개념은 두 가지 항목 - 이주자와 이주자 자신의 신체적 돌봄과 모국으로 보내지는 이주자의 수입인 현금이 서로 다른 방향의 고리를 따라 이동함을 전

9)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Hurton W., Giddens A., editors. Global Capitalism. Sage Publications; London: . pp. 132-133.

10) Hochschild A. R., 2000 Ibid, Parn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arnas, R. S., 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Vol. 5, No. 4, 317-336.

제한다.<sup>11)</sup>

그러나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개념으로 돌봄을 연구할 때 드러나는 한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있다. 특히 발다사르(L. Baldassar)와 메르라(L. Merla)<sup>12)</sup>는 돌봄 교환이 ‘고리’라는 원리를 넘어 확정되기 때문에 초국적 돌봄이 실제로는 다양하고 확대된 가족 구성원 간에 ‘순환하고’(circulate) 있음을 강조한다. 돌봄이 순환됨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돌봄 고리’가 이주자와 남아 있는 가족이라는 구분된 두 부류의 행위자들 사이, 즉 ‘쌍대적(dyadic)’ 관계만을 전제하지만, 사실 돌봄은 다양하고 확대된 가족구성원 간에 ‘다중 방향적(multidirectional)’으로 이동하며 순환한다고 주장한다. 돌봄이 순환된다는 연구들은 돌봄이 초국적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안에서 비대칭적인(asymmetrical)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의 원칙을 따른다고 강조한다.<sup>13)</sup> 돌봄을 순환한다고 바라보는 것은 이주자와 이들의 가족과 친족들이 돌봄의 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이며, 돌봄이 일반적 호혜성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러 세대의 구성원 간에 동시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비대칭적(또는 불균등하게)으로 이동함을 말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 가족원에게 주었던 돌봄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비대칭적(불균등한) 내용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sup>14)</sup>

‘돌봄 고리’의 개념은 ‘돌봄 유출’이 일어남으로써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송출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초국적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돌봄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만 실천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국적 가족은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초국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돌봄이 근접한 상황에서 행하는 돌봄보다 항상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간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초국적 상황에서 물질적 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가상적 친밀함’의 공유, 돌봄 목적의 본국방문 등의 초국적 돌봄은 초국적 가족 내의 공유된 소속감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돌봄 제공을 지리적 근접성이란 조건에 제한시키거나 초국적 가족 간의 돌봄 제공을 위기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성격의 것으로 전제할 필요가 없다.

사실 돌봄 고리의 개념은 모든 초국적 가족에서 돌봄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유출’은 본국에서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돌봄 인력이 모국을 빠져나가 가사노동자나 노인요양인력의 신분으로 다른 국가, 특히 부유한 국가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5)</sup> 사실 모든 초국적 가족이 돌봄 유출을 필수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이주한 성인 자녀가 돌봄 영역이 아닌 부문에 노동하면서 모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이산되어 있는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겨진 노부모를 초국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돌봄 고리의 개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돌봄 고리의 개념을 증산층 또는 숙련이주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녀 외의 가족 구성원 예컨대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관계의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sup>16)</sup>

11) Yeates N. 2004., Global care chain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Vol.6(3), pp.375-380.,

12) Baldassar, L., Merla, L.,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Routledge Transnationalism Series.New York: Routledge, 2014. Hardcover, pp.15-20

13) Baldassar, L., Merla, L., 2014, Ibid., p.21-22

14) Baldassar, L., Merla, L., 2014, Ibid., p.23-24

15) Sørensen, N. N., L. E. Guarnizo. 2007, “Transnational Family Life Across the Atlantic“. In: N. N. Sørensen, ed., Living Across Worlds: Diaspora, Development and Transnational Engagement.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pp.155-158

16) Dreby, J., 2006, “Children and Power in Mexican Transnational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9, No. 4, pp.1053-1054

### 3. 연구 분석틀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 가족에 대한 돌봄을 실천한다. 이슬람권 국가 가족원에 대한 규칙적 송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통한 정서적 지지, 모국 방문 등이 주요 초국적 돌봄 실천에 해당한다. 한국 거주 우즈베크인이주노동자와 본국 가족은 ‘초국적인 사회적 공간’ (transnational social space)에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민과 고용정책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련의 돌봄을 실천한다.

이주노동자의 물질적 지원은 주요 송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주노동자는 현재 거주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벌고, 생활비(숙소비, 식비, 일상생활비 등)로 돈을 얼마나 사용하고, 모국에 있는 가족에 얼마나 송금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정서적 지지는 이주노동자가 현재통신기술(SNS)을 통해 모국에 있는 가족과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연락의 빈도, 가족과 하는 이야기 등의 이야기들을 포함한다.

모국 방문으로 이주노동자의 모국방문 빈도를 의미한다.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돌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인지에 답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돌봄 요소를 통해 한국 거주 이주노동자의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돌봄을 파악한다.

## Ⅲ. 우즈베크인의 가족 돌봄

우즈베크인의 거의 다가 이슬람 문화를 가진다. 이슬람식 가족 문화에서 남성의 역할이 크고 가족을 바라지는 것은 남성이 하는 일이다. 여성은 식사준비를 해야 한다고나 살림을 해야 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직장 등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남성에게는 집안을 이끌고 직장 일 등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기대가 월등이 높다. 가족에서 아들의 역할이 크며, 부모 봉양은 아들이 해야 한다는 점이 강하다. 아들이 몇 명이 있는 경우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를 누가 모시는지와 누가 사회적 독립을 하는지가 결정된다. 부모의 선택을 받은 아들은 부모와 같이 살고, 모셔야 한다. 딸은 어느 때 ‘남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부모 봉양은 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즈베크인 가족에서는 사회적 독립을 하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복지를 가족의 모든 남성이 전담한다. 아들들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조부모,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1. 물질적 지원(송금)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정착지 수입이 일부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한 ‘돈의 흐름 (money flow)’ 만을 뜻하지 않는다. 송금이 이주자가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부모와 자녀 등)에 대한 초국적 돌봄 행위의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이다.<sup>17)</sup> 국제이주자의 송금은 가족구성원인 노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의식주와 의료복지의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중요한 초국적 돌봄 행위의 하나로 인식된다. 낮은 고용율과 임금 수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즈베크인들은 국제이주자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현지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형식의 물질적 지원

17) 김경학, 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아시아여성연구』, Vol.48 No.2, p. 40

을 해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M씨는 2007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고, 건축 채석업종에 고용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남아 있는 가족은 노부모, 배우자, 자녀 3명이다. 형제는 3명 남동생이며, 2명 여동생이 있다. 남동생 2명과 여동생 2명은 이미 결혼했고, 사회적 독립을 했다. M씨는 맡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게 되었다.

“한국에 2007년4월에 입국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중개업회사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축채석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을 벌었다. 직장에서 부여해 주었던 숙소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팀장한테 이야기 했고, 따라 원룸에 나가게 되었다. 원룸의 한 달씩 비용은 20만원 정도 되었다. 전체적으로 한 달씩 쓰는 돈은 약 50만원 정도이다. 나머지 돈을 안 쓰고 모아놓았다. 우즈베키스탄으로 3개월에 한번 약 400만 원 정도 돈을 보낸다. 나는 돈을 많이 안 쓴다.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다.”

(M씨 사례)

M씨가 한 달에 보는 돈은 200만 원(약 1,700\$)은 우즈베키스탄 수준으로 볼 때는 큰돈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우즈베키스탄 평균 월급은 17만원 ~ 27만원(150~230\$)이며<sup>18)</sup>, M씨가 한국에서 받는 월급은 본국평균 월급보다 9~11배로 많다.

“우리 가족이 사는 데는 땅이 넓지만 집이 좀 작았다. 내가 3년동안 채석공장에서 일하여 벌었던 돈을 주로 새로운 큰 집을 짓기 위해 썼다. 내가 한국오기 전에 집이 좁았고 방 4개만 있었다. 나와 집사람, 아이들은 방 2개를 썼고, 부모는 다른 방을 썼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큰 홀 하나 있는데 그 홀을 여동생이 쓰고 있었다. 사생활을 했을 때 너무 불편했고, 아이들이 울거나 시끄럽게 놀 때 부모님도 너무 불편했다.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집 2개를 큰 사이즈로 지었다. 현재에는 집사람들과 아이들은 따로 큰 집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새로 지었던 다른 집에 따로 살고 있다.”

(M씨 사례)

M씨는 한국 오기 전에 가족이 사는 공간이 좁아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생겼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다. 이 사례와 유사하는 F1씨는 2010년에 한국으로 유학(석사)으로 들어왔고, 졸업 이후 전공으로 취직 못해, 처음에 영어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다가 월급이 낮다는 이유로 사직했고, 현재에는 김해시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F1씨도 형제는 6명 중에 둘째이다. 형 1명, 남동생 1명, 여동생 3명이 있다. 여동생 2명이 이미 시집갔고,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은 대학생이다. 아버지는 농장(farmer)이다. 엄마는 집안일을 하고 있다. 형은 결혼하여 사회적 독립을 했다. 집안일은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F1씨는 아버지가 집을 리모델링하여 더 크게 짓는다는 결정을 받아드리고,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집으로 보냈다.

“ 아버님이 집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모았던 6천 달러 정도 돈을 집으로 보냈다.”

‘매월 집으로 돈 보내고 있느냐?’ 는 질문에 F1씨는 매월 보내지 않고 6개월에 한 번 보낸다고 했다. F1씨가 보낸 돈을 주로 대학생 2 명에게 쓴다고 했다.

18) Ахмед Ташкентский, 2013, “Поиск работы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инесите справку, что вы не верблюд”, <http://www.fergananews.com/articles/7654>(검색일2015년12월15일)

“ 내가 보내는 돈은 주로 우리 남동생과 여동생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제공하는데 쓴다. 나는 유학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고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다. 나는 나의 동생들은 힘들게 사는 것을 보기 싫다. 그들도 잘 공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물론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혼자로서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이 힘들다. 형님은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우리 가족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도와주어야지요...”

(F씨 사례)

F1씨는 자기가 경험했던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유학은 아니라도 다른 도시에서 대학하고 있는 2명의 형제를 고민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를 돌보는데 있어, M씨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기관지천식이 있으며, 1년에 한번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비를 당연히 M씨가 지불한다. 어머니는 신장염이 있고 가끔씩 치료약을 먹어야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매월 받은 연금이 있지만, 그 돈도 가족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돈 관리를 집사람에게 맡겼지만 멀리 있더라도 자기가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버님은 기관지천식이 있다. 그 병이 있는지에 15년 정도 되었다. 근대 요즘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 5년 동안 일 년에 한번 요양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물론 남동생들은 도와주고 있지만, 내가 버는 돈과 그들의 버는 돈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들은 매달씩 연금(150\$)을 받지만, 그 돈은 가족예산으로 들어가죠. 부모님은 같이 사니까 그분들이 돈을 따로 쓸 필요가 없죠. 집안에서 돈 관리는 내 집사람이 하지만, 가족 안에서 안내를 비롯하여 누가 돈을 어디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내가 관리하죠.”

(M씨 사례)

F1씨는 부모를 위해 따로 돈을 보낸 적이 없고, 자기가 남동생과 여동생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도와 줄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고, 지금도 돈 모으고 있다고 했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M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 자녀는 3명이 있다. 큰 딸은 13살이며, 둘째는 아들이고 11살이다. 막내는 아들이고 내가 한국에 온 이후 태어났다. 지금 8살이다. 아이들은 나를 일주일에 1번 영상통화를 통해 보지만 제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 집사람이 잘 교육 시키고 있겠지(웃음)... 학교는 무료이지만, 학교에 필요한 교복이나 다른 학용품 등은 우리 부담이죠. 다른 아이들은 비싼 교복이나, 학용품이 있으면, 아이들은 연락할 때마다 ‘비싼 걸로 사’ 달라고 한다(웃음)...”

(M씨 사례)

## 2. 정서적 지원

토마스(C. Thomas)<sup>19)</sup>는 정서적 지지를 “어떤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감정과 상태” (emotional state of caring about someone)로 정의했다. 이는 특정 사람에 대한 돌봄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상태, 즉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지리적으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가까이에서 부모를 돌볼 수는 없다. 원거리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전화, 바이버(Viber), 스

19) Carol Thomas.,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4): pp. 650-655

카이프(Skype), 왓츠앱 메신저(WhatsApp Messenger) 등의 정보통신기술(ICT)들을 이용해 본국에 있는 가족에 개한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은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다. 모국과 본국 사이가 멀기 때문에 교통비가 너무 비싼 상태에서 돌봄을 실현하는 것은 이주자에게 힘든 일이다.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전달하거나 양쪽간의 상태에 대해 서로 정보교환 등으로 말, 표정 등으로 감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M씨는 평일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스카이프, 바이버,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네트워킹한다. 이를 위해 M씨는 안내에게 돈 보냈고, 그들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제공해 주었다. 안내와 보무들은 처음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 못해 힘들었지만, 요즘은 잘 쓰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연락하기 힘들었다. 나는 그 때 휴대폰도 없었고, 친구들의 휴대폰을 빌려 받고 집에 전화했다.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휴대폰 샀다. 그러나 집으로 전화하기가 너무 비쌌다. 한 달에 한번 전도 연락했다. 그 때는 너무 힘들었고, 안내가 임신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했다...  
...2012년에 스마트폰 샀다. 중고였지만 쓸 만했다. 안내한테도 스마트폰 사 주었고 컴퓨터도 사 주었다. 처음에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안내를 비롯한 가족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통화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되어 있다.

M씨는 스카이프 영상통화, 바이버를 주말에 쉴 때 쓰고, 왓츠앱 메신저를 매일 근무기간이 끝날 때 쓴다. 일자리에서 근무기간에 통화와 메시지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녁이나 밤에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시차가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시간을 서로 약속해서 정한다.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하기조차 이야기하면 안 된다. 가르고 있는 석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저녁 이후나 밤에는 왓츠앱으로 서로 문자를 보내고 채팅하여 안내와 이야기 나눈다. 영상통화를 하기 힘들다. 시차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주말에 ‘이런 시간에 이야기하자고’ 서로 약속한다. 안내가 그 시간을 맞추어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알려 주고 다 모을 수 있게 해 준다...특히 아이들은 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한다. 보고 싶고 기리원한다고 이야기 한다. 언제 오냐고 항상 묻는다...”

M씨는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대해 안내와 주로 평일 상태를 물어보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하는 것에 대해 상의한다고 했다. 아이들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부모와 그들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F1씨는 가족과 주로 휴대폰으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다. 집에서 컴퓨터 없고 스마트폰으로 남동생, 여동생과 영상통화를 하고, 부모와 일반 국제전화를 통해 이야기한다고 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은 스마트폰 아니다. 스마트폰은 남동생과 여동생한테만 있다. 그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집에서는 국제전화카드(만원이나 만오천원 자리)를 사서 전화한다. 하나를 사면 약 200분 정도 통화 할 수 있다. 나는 한가 번에 한 카드를 쓰지 않는다. 부모와 약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가끔은 20~30분 정도 이야기한다. 부모님의 상태를 알아보고 가족 소식을 듣는다. 남동생과 여동생과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한다. 그들이 나에 대한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달하니까 부모님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한다.”

F1씨는 남매와 주로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남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상담한다.

더군다나 F1씨는 부모와 가족에 관한 소식을 남매한테도 듣는다.

“ 그들은 내가 옛날에 다녔던 대학교에서 공부한다. 물론 요즘 학교 구조는 좀 더 바뀌었지만 나의 경험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동생과 남동생한테 부모님과 가족, 또한 형님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나에 대한 소식을 그들도 부모님께 전달 해 준다.” \

### 3. 모국 방문

초국적 돌봄이 지역과 국가를 종횡하면서 가족과 친구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순환하고 있지만, 이러한 돌봄의 순환이 근거리에서 직접 행하는 돌봄과 모든 점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멀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며,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는 어려운 일이다.<sup>20)</sup>

해외에 이주하는 이주노동자는 근거리에서 일상적 방문과 식사제고 및 간병, 아이들을 위한 감정 등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흔히 이주자는 가족에 대해 죄의식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회가 되면 본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주자가 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멀리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의 돌봄을 직접 하기 위한 것이며, 이주자 자신에게도 잠시나마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sup>21)</sup>

이 연구의 대상인 M1씨와 F씨의 한국 체류 평균 기간은 6년을 넘어 가며, M씨의 경우 아직 한번도 집에 못 갔고, F씨는 3년에 2번씩 본국을 방문했다. 해외 체류 우즈베키스탄 국적 소유자가 2015년까지 현 여권을 신 여권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본국으로 여권을 변경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우즈베키인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M씨도 12월 말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본국 가서 여권 신청을 해야 한다면, 가족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M씨는 12월 27일에 비행기 티켓을 샀다. 아는 우즈베키인 친구를 통해 편도승차권은 57만원을 내고 획득했다. 아이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인 스마트폰 등, 안내한테 화장품, 부모에게 한국전통 의료품(인삼 등)을 샀다. 아이들을 오래 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졌고, 빨리 고향으로 가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F씨는 유학생살을 하면서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 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할 때는 1번만 방문했다. F씨도 올해 12월18일에 모국을 방문한다고 했다. 그는 M씨와 마찬가지로 여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고, 또한 새해 명절을 가족과 같이 보내고 싶다고 했다.

F씨는 그 전에 모국방문은 여름 때였고, 아버지가 목화 농촌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었다. 특히 목화밭을 관개할 때 인력이 필요하며, 아버지와 같이 일했다.

## IV. 결론

20) Baldassar L., Merla L., 2014, Ibid, p.

21) Baldassar, L. and Baldock, C. (2000) 'Linking migration and family studies: transnational migrants and the care of ageing parents', in Agozino, B. (e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igration Research. Aldershot: Ashgate, p. 67-69.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의 부족과 경제적 침해 등의 요인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의 수가 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한국으로 이주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에 대한 돌봄은 초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은 흔히 성금과 정서적 지원, 그리고 본국 방문의 형식으로 수행된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송금은 소규모의 월수입이나 부모의 연금 등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생활비, 의료비용, 더 다른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실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 SNS를 이용한 문자와 영상통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규칙적인 이주노동자의 정서적 지원은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초국적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는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의 통과의례이나, 이민관리 서류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 본국 방문을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 기회로 삼고 있다.

## 참고문헌

-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Aged Care: the mobility of care and the migrants of aging” ,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 33, No. 2, 275-297
- Baldassar, L. and Baldock, C., 2000, ‘Linking migration and family studies: transnational migrants and the care of ageing parents’ , in Agozino, B. (e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igration Research*. Aldershot: Ashgate, 61-89.
- Baldassar, L., Merla, L.,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Routledge Transnationalism Series. New York: Routledge, 2014. Hardcover, pp.304
- Baldock, C., 2000, “Migrants and Their Parents” ,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1, No. 2, 205-224.
- Bryceson, D. and U. Vuorela, 2002, “Transnational Famil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D. Bryceson and U. Vuorela eds.,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ew York: Berg.
- Carol Thomas.,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Vol. 27(4) pp. 645-663
- Dreby, J., 2006, “Children and Power in Mexican Transnational Families” ,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9, No. 4, 1050-1064.
- Erica Marat, 2009, “Labor Migration in Central Asia: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 A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 Goulbourne, H., et al., 2010, *Transnational Families: Ethnicities, Identities and Social Capital*, London: Routledge.
- Hochschild A. R.,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Hurton W., Giddens A., editors. *Global Capitalism*. Sage Publications; London: . pp. 130-146.
- Hochschild, A. R., 2003. “Love and Gold” , in Barbara Ehrenreich and Arlie Russell Hochschild (ed.), 2003.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Henry Holt and Company, pp. 15-30
- Parren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enas, R. S., 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 *Global Networks*, Vol. 5, No. 4, 317-336.
- Sørensen, N. N., L. E. Guarnizo. 2007, “Transnational Family Life Across the Atlantic “. In: N. N. Sørensen, ed., *Living Across Worlds: Diaspora, Development and Transnational Engagement*.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Yeates N. *Global care chain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004;6(3):369-391.

Wilding, R., 2006, “Virtual Intimacies? families communicating across transnational contexts” , Global Networks, Vol. 6, No. 2, 125-142.

김경학, 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 『아시아여성연구』, Vol.48 No.2, 25-57(33쪽)

<http://www.fergananews.com>

<http://www.immigration.go.kr/>

<http://russian.eurasianet.org/>

<http://migrant.ferghana.ru>